

1. 놀랍게도 문제 거의 대부분이 제가 심판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분야 사건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연장된 존속기간 효력범위는 수업시간에 자주 소개드린 것처럼 제가 개업하기 전까지 심판 및 특허법원 단계를 직접 대리했던 사건으로, 이 사건 포함해서 제약분야 사건들은 사안의 이해를 위해 1차때부터 2차 수업까지 수업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화들과 약대에서의 기본적인 지시 및 허가 과정까지 소개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답안 작성하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문제-2 의 폐길화시킨 성분은 혹시라도 수업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리가 약대생만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다행히 작년 1차 최신판례 강의와 올해 6월 2차 최신판례 강의에서 2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이었어서, 이 부분도 잘 쓰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3 과 문제-4 는 사례문제를 풀며 연습했던 공식 그대로 출제되어, 이 부분도 매우 익숙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점이 14점도 나왔지만 법적지위, 권리행사로 나누어 목차 잡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3목차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2. 이번 시험 쉽게 느끼시고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동차 합격도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충분히 동차 합격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3. 반대로 혹시 남들과 달리 이번 시험이 어려우셨던 분들께는 공부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체계적인 공부**를 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떤 기본서에 대한 맹목적이고 단편적인 암기로는 2차 시험 결단코 효과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판례와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 2차 시험도 작년 2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암기해서 쓸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근 2차 시험 경향이 이렇습니다.

4. 최신판례 문제인 문제-1 과 문제-2 가 어려우셨던 분들께는 **판례심화강의**를 적극 추천드리며, 꼭 최신판례 정리강의까지 수강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판례 수업 때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은 그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와 내막까지 상세히 소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시험장에서

매우 크게 도움되실 겁니다. 당장 올해도 문제-1 과 문제-2 가 매우 쉽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5.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인 문제-3 과 문제-4 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사례강의 반드시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들 모두 전형적인 공식 문제입니다. 사례강의에서 그 체계와 공식들 완벽하게 잡아드립니다.

6. 아울러 답안지 목차부터 어려우셨던 분들께서는 JHJ 공식 반드시 연습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가에는 배점과 무관하게 목차가 난잡한 GS 해설들이 있습니다(심지어 기출해설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연습하면 실력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점에 따른 고정적 기준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난잡한 목차는 교수님 특강에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점 문제와 14점 문제는 목차 수가 달라야만 하고, 14점 배점이 나와도 JHJ 공식에 따라 쉽게 목차 잡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7. 2차 공부법에 대한 상담은 꼭 논란이 없는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두문자 따서 외우는 것은 절대로 효과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판례 사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답안지 목차 공식을 갖추고,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는 그 공식을 숙지하기 위해 연습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마도 판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 있는 강의의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답안지 목차 공식 체계가 없으시고, 법적지위와 권리행사 문제, 심사관님 심사나 정당권리자 조치 등 전형적인 유형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신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어떤 기본서만 외우거나 판례 두문자만 외우셨다면 아마 이번 시험 많이 곤란하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외우신 GS 내용이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고, 문제유형부터 다르다고 생각되었다면 그 연습하신 학원가 문제들이 이상한 겁니다. 출제경향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방법만 바꾸시면 내년에는 62회 문제들이 남들처럼 매우 쉽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신 분들께는 축하드립니다. 멋진 합격수기와 각 과목별 강사지원 기대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날에 수습 사무소 선정 Tip 소개 설명회 있습니다. 그 날 또 뵙겠습니다.

반면에 조금 아쉽게 보신 분들께는 9월부터 판례심화강의를 시작으로, 사례강의와 2차 기출문제풀이강의 통해 완벽하게 체계 잡아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판례심화강의에서 제가 소개드리는 판례의 사실관계들 꼭 잘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에 도움되실 수 있도록 맵핑화 자료도 개정하여 최신판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근 2차 시험 경향이 판례를 그대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경향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가 강의들이 많던데, 그렇게 준비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판례심화강의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제 - 1] 제약분야 최신판례 문제

(1) JHJ 공식 5점당 1목차 → 2목차, 적중자료: JHJ 최신판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 특허원부 등록 여부에 있어서 전용실시권과 차이

전용실시권 설정 등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하여(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등 참조),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불요식행위이다. 또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명시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독점적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구체적인 실시허락조건을 특정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에 독점적 통상실시권허락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JHJ 공식 5점당 1목차 → 2목차, 적중자료: JHJ 최신판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 손해배상청구 행사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용실시권과 동일

특허권자로부터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받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독점적 권리인 점을 등록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차이가 있으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점에서는 전용실시권자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의해 누리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결국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권자의 독점적 실시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다만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아니하고, 그 제3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특허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란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의 침해는 인정되고 통상실시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데,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침해는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은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특허원부 등록 여부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고, (2)번은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침해 성립이라는 공통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3) JHJ 공식 5점당 1목차 → 1목차, 적중자료: JHJ 최신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 직접침해 X

13종의 각 개별 접합체 원액을 혼합하는 공정 과정에서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의 투입량, 혼합비율 및 혼합순서, 혼합할 때의 pH, 온도, 교반속도, 교반시간 등 혼합조건은 폐렴구균

백신으로 사용하기 위한 13가 면역원성 조성물을 구현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13종의 각 개별 접합체 원액을 혼합하여 13가 면역원성 조성물을 제조하는 마지막 단계의 공정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다고 볼 수 없다.

위 혼합 공정에서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의 투입량, 혼합비율, 혼합순서, 혼합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13가 면역원성이 구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의 생산만으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인 13가 면역원성을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을 생산한 행위는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JHJ 공식 5점당 1목차 → 1목차, 적중자료: JHJ 최신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 간접침해 X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가 생산한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은 모두 수출되어 국외에서 완성품으로 생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 2] 제약분야 최신판례 문제

(1) JHJ 공식 묻는바 목차 → 2목차, 적중자료: JHJ 최신판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
후11070 : 거절결정

이 사건 의약품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인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그 의약품의 발명인 이 사건 청구항은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대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JHJ 공식 5점당 1목차 → 2목차,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심판원 및 특허법원 담당 대리인 조현중 사건), 적중자료: 실전GS 8회차 문제 1 : 효력 O

이상한 학설 작성은 점수 없습니다. 학설은 제품설, 주성분설, 유효성분설까지입니다. 최근 제 사건 특허법원 변론 방청하신 분들도 보셨겠지만, 법원에서도 제품설, 주성분설, 유효성분설까지만 논합니다.

[문제 - 3] 창작 문제

(1) 1) JHJ 공식 5점당 1목차 → 1목차, 판례노트 01-3번, 2001후1044 : 적법

2) JHJ 공식 5점당 1목차 → 1목차, 적중자료: 사례집 핸드북, 심사단계 조치 공식(거통 후, 거결 후, 특결 후, 거불심 기각심결 후) : 재심사청구, 거불심

5점 밖에 안 되는 문제입니다. 1목차 작성으로 충분합니다. 교수님 특강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의미 없는 내용은 배점이 없습니다.

(2) JHJ 공식 5점당 1목차 → 2목차(주지부합 사례 기본 목차), 적중자료: 사례집 핸드북, 주지부합 사례 : 적법

(3) JHJ 공식 5점당 1목차 → 3목차(甲, A 법적지위, 乙 권리행사 가부, 전형적인 목차), 적중자료: 사례집 핸드북, 법적지위: 甲 실시권자(공유인 경우 공유자 동의 없이 실시 가능), A 비침해자(실시권자 의뢰로 제작 후 실시권자에게만 납품한 경우 비침해), 乙 배타권자, 권리행사(공유자 중 1인 권리행사 가부): 불가

수업시간에 강조드린 것처럼 A사가 침해인지는 2회 반복 기출된 내용입니다. 실시권자가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물건의 생산을 의뢰했을 때, 실시권자의 의뢰에 따라 생산한 자의 실시는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문제 - 4] 창작 문제

(1) JHJ 공식 5점당 1목차 → 3목차(甲乙丙 법적지위, A 법적지위, 정당권리자 乙 조치, 전형적인 목차), 적중자료: 사례집 핸드북

법적지위

甲: 발명자 X

乙: 발명자 O (천연물 추출도 제약분야이며 제약분야는 실험과정에 실질적 협력이 있을 때 발명자로 인정), 공동발명, 약정 없는 경우 균등 추정, 특专利权 50%

丙: 발명자 O, 특专利权 50%

A: 특专利权 0% 무권리자(공유인 특专利权 이전은 공유자 동의 필요, 乙 동의 없었으므로 丙 지분 50% 조차도 이전 X)

50% 지분을 가진 정당권리자 乙 조치

A 사에 대해 乙 단독으로 일부 지분 출원인 변경 신청은 규정 없음, 특허출원에 대해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 정보제공

(A사 출원은 특专利权 0% 의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이며, 제44조 위반이 아닙니다)

(2) JHJ 공식 5점당 1목차 → 2목차, 적중자료: 사례집 핸드북, 신규성 위반 특허취소신청(누구든지 가능), 특허무효심판 청구(이해관계인에 한해 가능하나 실시권자도 이해관계 인정되므로 가능, 실시권자 무효심판 이해관계)

2026년도 변리사 2차시험대비

2025년도 NEW START 변리사스쿨 Care+ 관리형 2차 기득종합반 모집중

기득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학원비 걱정 없이 2차만 집중하세요

